‘미래도시 광주’ 조형물 새단장

광주시청 직원들이 28일 시청 광장에 있는 조형물 ‘미래도시 광주:기원’(알렉산드르 멘디니 작)의 외부 마감재를 아지랑이가 연상되는 봄 색깔로 바꾸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 수능 외국어 더 어려워질듯

평가원, 언어·수리 ‘가’는 쉽게 출제

지난해 만점자를 양산했던 외국어 과목이 올해 수능(11월8일)에서는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언어·수리 ‘가’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태제 원장은 28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 난이도는 영역별 만점자가 전년도 방침과 같이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문항이 출제된다.

성 원장은 그러나 “영역별 만점자를 실제로 1% 수준에 맞추려면 작년 수능에 비해 외국어는 약간 어려워져야 하고 언어나 수리 ‘가’형은 다소 쉬워져야 할 것”이라며 “수리 ‘나’형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영역별 만점자 비율 1%가 계획대로 지켜지면 작년 수능에 비해 언어와 수리 ‘가’는 쉬워지고 외국어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어 영역 ‘듣기’ 항목의 경우 원어민의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쓰기’에서는 글의 내용 요약, 문단 구성능력을 테스트한다.

언어 영역은 인문·사회·과학·기술·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문을 선정, 독서 체험의 깊이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온다. 지난해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언어 0.28%, 수리 ‘가’ 0.31%, 수리 ‘나’ 0.97%, 외국어 2.67%로 수리 ‘나’형을 제외하고는 만점자 1%라는 목표치를 비켜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학년도 수능시험 일정

3월 28(수)	시행 기본계획 발표
7월 2(월)	시행 세부계획 공고(중앙 일간지)
8월 22(수) ~9월 6(목)	원서 교부 및 접수 (토요일,공휴일 제외)
9월 4(화) ~6(목)	원서내용 변경 (취소)신청
11월 8(목)	시험일
11월 8(목) ~12(월)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5일간)
11월 19(월)	정답 확정
11월 9(금) ~27(화)	채점 (19일간)
11월 28(수)	성적통지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합뉴스

광주 고교배정 ‘우수학생 나눠갖기’

내년부터 중학교 내신 성적순 분배키로

현 선지원 후추첨보다 학생 선택권 축소

내년 광주지역 고교에 진학하는 현재 중3 학생들은 사실상 내신성적을 토대로 학교를 배정받는다.

광주시교육청이 현행대로 학생에게 선·후지원 희망 학교를 써넣도록 모양새를 갖췄지만, 배정기준의 핵심 축은 성적으로 지난 1999년 연합고사 폐지 후 도입한 강제배정에 가깝다.

시교육청은 28일 고입추첨관리위원회를 열고 2013학년도 고교 배정을 위해 현행 추첨방식으로 지원은 받지만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각 고교별로 고루 배치하는 ‘평준화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재의 중학교 3학년 1만6000여명에게 적용된다.

현행 선지원 40%, 후지원 60%의 틀은 유지했다고 하지만 내신성적이 학교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 희망학교 배정 가능성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진다.

변경안에 따르면 추첨 배정방식은 유지하며 학생들이 선지원한 학교 2곳에서 정원의 40%를 뽑되, 1~9등급까지 성적별로 분류된 학생이 균등 배분된다. 나머지 60%도 학생이 후지원한 학교(5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다.

시교육청은 사립고교에 우수한 학생이 몰려 공립과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배정방식을 바꿨다.

서울교육청도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이같은 배정 방식 변경을 추진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유보한 바 있어,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원단체, 시의회 등의 반발이 적지 않았음에도 시 교육청은 그대로 밀어붙였다.

‘광주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 정미경 사무국장은 “배정방식 변경은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공립학교의 실력향상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책은 도외시한 채 학생 선택권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라며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교육현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현 고교 현 고교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선지원(2개교)한 학교에 정원의 40%를 먼저 추첨배정하고 나머지 60%는 지리적 정보시스템(GIS)을 적용해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한 곳을 같은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교육청 고교배정 변경 성적순 강제 배정 안돼”

광주시의원 성명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호, 박인화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강행한 고교배정방식 개선안은 기존 선지원과 후지원의 의미가 사라진 성적순에 따른 강제 배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 선택권과 평준화 의미를 살렸다고 하지만 오히려 선택권 의미가 사라졌다. 원거리 배정 학생이 늘어 통학 불편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을·사회적 기업 지원 NGO단체 적극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NGO단체가 나섰다.

광주NGO시민재단은 지난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용역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NGO시민재단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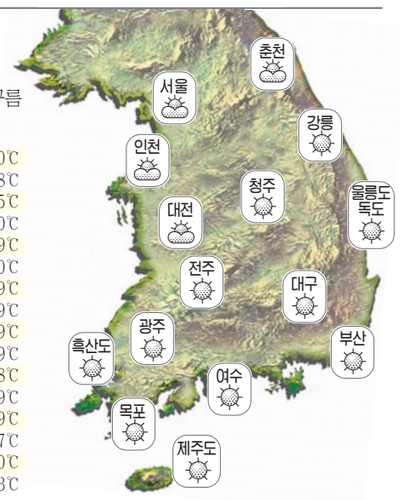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4분 해짐 18시 51분 달뜸 10시 12분 달짐 00시 03분

화창한 봄

대체로 맑은 후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광 주	구름조금	6/20℃
목 포	구름조금	6/18℃
여 수	구름조금	8/15℃
나 주	구름조금	5/20℃
완 도	구름조금	6/19℃
구 례	구름조금	2/20℃
강 진	구름조금	5/19℃
해 남	구름조금	4/19℃
장 흥	구름조금	4/19℃
순 천	구름조금	5/19℃
영 광	구름조금	4/18℃
진 도	구름조금	5/19℃
전 주	구름조금	4/19℃
군 산	구름조금	4/17℃
남 원	구름조금	2/20℃
흑산도	구름조금	6/1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밀물	썰물
목포	05:58 17:48	11:10 23:10
여수	00:32 06:28	12:17 18: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금)	31(토)	4/1(일)	2(월)	3(화)	4(수)
날 씨						
최저/최고	4/12	5/10	2/13	3/16	7/12	3/14

나들이철 식중독 급증…위생관리 철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나들이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식중독 환자 수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환자의 평균 44%가 나들이철인 4월부터 6월 사이 집중됐다.

이 시기는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직장이나 가정의 야유회 등이 증가하나 아침과 저녁 기온이 높지 않아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은 1회분만 준비해 2시간 내 섭취하며 장시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나들이를 갈 때는 음식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지 말고 아이스박스를 사용해 햇볕이 닿지 않도록 조치하며 차안에서 오랜 시간 보관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